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와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

혁명사상 만세!

조동신문

조선로동당중앙위원회기관지

제120호 [부제 제25994호] 주제 107(2018)년 4월 30일(월요일)

당의 령도 따라 내 나라,

내 조국을 더욱 부강하게 하기

위해 힘차게 일해나가자!

희세의 천출위인들의 불후의 고전적로작들을

여러나라에서 단행본으로 출판, 연구보급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의 불후의 고전적로작《위대한 수령님의 뜻》을 받들어 내 나라, 내 조국을 더욱 부강하게 하자고 헌신하는 민주통일과 평화를 위한 활동에서 단행본으로 출판하였다.

로작발행식이 6일 출판사에서 진행되었다.

민주통일의 여러 성과, 단체, 기관의 인사들과 군중이 여기에 참가하였다.

민주통일과 공산당 중앙위원회 회부총무서인 민주통일·조선원선 및 현대성회 위원장 오매미 가스통을 보보는 대 양질에 즐을 하여 김정일동지의 뜻을 축만, 발행하는 것을 기쁘게 생각한다고 하면서 다음과 같이 말하였다.

김일성주석은 주체사상을 창시하시고 조선혁명과 세계혁명에 불멸의 공헌을 하신 20세기의 걸출한 수령이시다.

조선식사회주의는 그이께서 풍려 주신 최대의 애국유산이다.

위대한 수령께서 계획하시고 솔비에 이끌어오신 주체혁명위업은 존경하는 김정은각하에 의해 빛나게 계승되고 있다.

김정은각하의 따뜻한 지혜과 통이 큰 절단, 불면불휴의 정력적인 명도가 있어 최근 조선반도에서는

국적인 변화가 일어나고 있다.

특히 경애하는 최고령도자와의 역사적인 중국방문으로 하여 조중친선관계는 새로운 높은 단계에 서 확대 발전되고 있다.

경애하는 최고령도자와의 현명한 봉모에 조선인민이 위대한 수령들의 영원한 사회주의 강국건설과 조국통일위업실현에서 보다 큰 성과를 거두기 바란다.

**

위대한 수령 김일성 동지와

경애하는 최고령도자와의 현명한 봉모에 조선인민이 위대한 수령들의 영원한 사회주의 강국건설과 조국통일위업실현에서 보다 큰 성과를 거두기 바란다.

**

위대한 수령 김일성 동지와

경애하는 최고령도자와의 현명한 봉모에 조선인민이 위대한 수령들의 영원한 사회주의 강국건설과 조국통일위업실현에서 보다 큰 성과를 거두기 바란다.

**

위대한 수령 김일성 동지와

경애하는 최고령도자와의 현명한 봉모에 조선인민이 위대한 수령들의 영원한 사회주의 강국건설과 조국통일위업실현에서 보다 큰 성과를 거두기 바란다.

**

위대한 수령 김일성 동지와

경애하는 최고령도자와의 현명한 봉모에 조선인민이 위대한 수령들의 영원한 사회주의 강국건설과 조국통일위업실현에서 보다 큰 성과를 거두기 바란다.

**

위대한 수령 김일성 동지와

경애하는 최고령도자와의 현명한 봉모에 조선인민이 위대한 수령들의 영원한 사회주의 강국건설과 조국통일위업실현에서 보다 큰 성과를 거두기 바란다.

**

위대한 수령 김일성 동지와

경애하는 최고령도자와의 현명한 봉모에 조선인민이 위대한 수령들의 영원한 사회주의 강국건설과 조국통일위업실현에서 보다 큰 성과를 거두기 바란다.

**

위대한 수령 김일성 동지와

경애하는 최고령도자와의 현명한 봉모에 조선인민이 위대한 수령들의 영원한 사회주의 강국건설과 조국통일위업실현에서 보다 큰 성과를 거두기 바란다.

**

위대한 수령 김일성 동지와

경애하는 최고령도자와의 현명한 봉모에 조선인민이 위대한 수령들의 영원한 사회주의 강국건설과 조국통일위업실현에서 보다 큰 성과를 거두기 바란다.

**

위대한 수령 김일성 동지와

경애하는 최고령도자와의 현명한 봉모에 조선인민이 위대한 수령들의 영원한 사회주의 강국건설과 조국통일위업실현에서 보다 큰 성과를 거두기 바란다.

**

위대한 수령 김일성 동지와

경애하는 최고령도자와의 현명한 봉모에 조선인민이 위대한 수령들의 영원한 사회주의 강국건설과 조국통일위업실현에서 보다 큰 성과를 거두기 바란다.

**

위대한 수령 김일성 동지와

경애하는 최고령도자와의 현명한 봉모에 조선인민이 위대한 수령들의 영원한 사회주의 강국건설과 조국통일위업실현에서 보다 큰 성과를 거두기 바란다.

**

위대한 수령 김일성 동지와

경애하는 최고령도자와의 현명한 봉모에 조선인민이 위대한 수령들의 영원한 사회주의 강국건설과 조국통일위업실현에서 보다 큰 성과를 거두기 바란다.

**

위대한 수령 김일성 동지와

경애하는 최고령도자와의 현명한 봉모에 조선인민이 위대한 수령들의 영원한 사회주의 강국건설과 조국통일위업실현에서 보다 큰 성과를 거두기 바란다.

**

위대한 수령 김일성 동지와

경애하는 최고령도자와의 현명한 봉모에 조선인민이 위대한 수령들의 영원한 사회주의 강국건설과 조국통일위업실현에서 보다 큰 성과를 거두기 바란다.

**

위대한 수령 김일성 동지와

경애하는 최고령도자와의 현명한 봉모에 조선인민이 위대한 수령들의 영원한 사회주의 강국건설과 조국통일위업실현에서 보다 큰 성과를 거두기 바란다.

**

위대한 수령 김일성 동지와

경애하는 최고령도자와의 현명한 봉모에 조선인민이 위대한 수령들의 영원한 사회주의 강국건설과 조국통일위업실현에서 보다 큰 성과를 거두기 바란다.

**

위대한 수령 김일성 동지와

경애하는 최고령도자와의 현명한 봉모에 조선인민이 위대한 수령들의 영원한 사회주의 강국건설과 조국통일위업실현에서 보다 큰 성과를 거두기 바란다.

**

위대한 수령 김일성 동지와

경애하는 최고령도자와의 현명한 봉모에 조선인민이 위대한 수령들의 영원한 사회주의 강국건설과 조국통일위업실현에서 보다 큰 성과를 거두기 바란다.

**

위대한 수령 김일성 동지와

경애하는 최고령도자와의 현명한 봉모에 조선인민이 위대한 수령들의 영원한 사회주의 강국건설과 조국통일위업실현에서 보다 큰 성과를 거두기 바란다.

**

위대한 수령 김일성 동지와

경애하는 최고령도자와의 현명한 봉모에 조선인민이 위대한 수령들의 영원한 사회주의 강국건설과 조국통일위업실현에서 보다 큰 성과를 거두기 바란다.

**

위대한 수령 김일성 동지와

경애하는 최고령도자와의 현명한 봉모에 조선인민이 위대한 수령들의 영원한 사회주의 강국건설과 조국통일위업실현에서 보다 큰 성과를 거두기 바란다.

**

위대한 수령 김일성 동지와

경애하는 최고령도자와의 현명한 봉모에 조선인민이 위대한 수령들의 영원한 사회주의 강국건설과 조국통일위업실현에서 보다 큰 성과를 거두기 바란다.

**

위대한 수령 김일성 동지와

경애하는 최고령도자와의 현명한 봉모에 조선인민이 위대한 수령들의 영원한 사회주의 강국건설과 조국통일위업실현에서 보다 큰 성과를 거두기 바란다.

**

위대한 수령 김일성 동지와

경애하는 최고령도자와의 현명한 봉모에 조선인민이 위대한 수령들의 영원한 사회주의 강국건설과 조국통일위업실현에서 보다 큰 성과를 거두기 바란다.

**

위대한 수령 김일성 동지와

경애하는 최고령도자와의 현명한 봉모에 조선인민이 위대한 수령들의 영원한 사회주의 강국건설과 조국통일위업실현에서 보다 큰 성과를 거두기 바란다.

**

위대한 수령 김일성 동지와

경애하는 최고령도자와의 현명한 봉모에 조선인민이 위대한 수령들의 영원한 사회주의 강국건설과 조국통일위업실현에서 보다 큰 성과를 거두기 바란다.

**

위대한 수령 김일성 동지와

경애하는 최고령도자와의 현명한 봉모에 조선인민이 위대한 수령들의 영원한 사회주의 강국건설과 조국통일위업실현에서 보다 큰 성과를 거두기 바란다.

**

위대한 수령 김일성 동지와

경애하는 최고령도자와의 현명한 봉모에 조선인민이 위대한 수령들의 영원한 사회주의 강국건설과 조국통일위업실현에서 보다 큰 성과를 거두기 바란다.

**

위대한 수령 김일성 동지와

경애하는 최고령도자와의 현명한 봉모에 조선인민이 위대한 수령들의 영원한 사회주의 강국건설과 조국통일위업실현에서 보다 큰 성과를 거두기 바란다.

**

위대한 수령 김일성 동지와

경애하는 최고령도자와의 현명한 봉모에 조선인민이 위대한 수령들의 영원한 사회주의 강국건설과 조국통일위업실현에서 보다 큰 성과를 거두기 바란다.

**

위대한 수령 김일성 동지와

경애하는 최고령도자와의 현명한 봉모에 조선인민이 위대한 수령들의 영원한 사회주의 강국건설과 조국통일위업실현에서 보다 큰 성과를 거두기 바란다.

**

위대한 수령 김일성 동지와

경애하는 최고령도자와의 현명한 봉모에 조선인민이 위대한 수령들의 영원한 사회주의 강국건설과 조국통일위업실현에서 보다 큰 성과를 거두기 바란다.

**

위대한 수령 김일성 동지와

경애하는 최고령도자와의 현명한 봉모에 조선인민이 위대한 수령들의 영원한 사회주의 강국건설과 조국통일위업실현에서 보다 큰 성과를 거두기 바란다.

**

위대한 수령 김일성 동지와

경애하는 최고령도자와의 현명한 봉모에 조선인민이 위대한 수령들의 영원한 사회주의 강국건설과 조국통일위업실현에서 보다 큰 성과를 거두기 바란다.

**

위대한 수령 김일성 동지와

경애하는 최고령도자와의 현명한 봉모에 조선인민이 위대한 수령들의 영원한 사회주의 강국건설과 조국통일위업실현에서 보다 큰 성과를 거두기 바란다.

**

위대한 수령 김일성 동지와

경애하는 최고령도자와의 현명한 봉모에 조선인민이 위대한 수령들의 영원한 사회주의 강국건설과 조국통일위업실현에서 보다 큰 성과를 거두기 바란다.

**

위대한 수령 김일성 동지와

경애하는 최고령도자와의 현명한 봉모에 조선인민이 위대한 수령들의 영원한 사회주의 강국건설과 조국통일위업실현에서 보다 큰 성과를 거두기 바란다.

강선의 노을은 영원하리라

천리마의 고향에 새겨진 령도의 자욱을 더듬어

사회주의 경제건설에 총력을 집중하여 우리 혁명의 전진을 더욱 기속화할 데 대한 당의 전투적 구호를 높이 달고 산악같이 펼쳐나선 강선,

위대한 수령님과 위대한 장군님의 불멸의 명도의 자욱이 뜨겁게 새겨져 있는 강선으로 향하는 우리의 마음은 떨어지며 말아울었다.

강선! 불러 만 보아도 위대한 수령님들의 체위가 어려오고 철새와 인물에서 수놓으신 불멸의 뼈사가 송영히 되새겨지는 고장이 아니면,

아름다운 대 통강하류, 차창으로 흘러드는 혼황, 신록으로 탄창되어가는 가로수들...

강선땅을 가까이 할수록 그 모든 것이 유령하게만 느껴졌다.

밀리에서부터 역만해살속에 빛나는 위대한 수령님의 통상이 숭엄하게 아름다.

지금도 우리 수령님께서 철의 도시에서 통제금과 함께 계시는 것만 같아 우리의 가슴은 빠르렀다. 빠르 후 그려온 만경과 물을 찾으시기 전에 강선로 통제금부터 만나 주신 우리 수령님,

천정이 끝난지 한주일만에는 파피린 강선세 강소(당시)를 찾으시어 차체의 힘과 기술로 제강소를 일떠세운 방향과 방도를 한바탕 헤아렸고 그 후에도 끝없는 천지지의 자우용 새기심 위대한 수령님,

우리와 만난 철리마제 강변 향기 암소와 한 일군은 위대한 수령님들의 천지지도 60돐이 되는 4월이어서 럭사의 그 날이 더욱 감회깊이 되새겨 된다고 말하였다.

위대한 영도자 김정일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표시하였다.

『수령님께서는 지난날 기회가 있을 때마다 늘 강선로 통제금의 불멸의 통행성에 대하여 회고하시면서 혁명의 길에 아무리 어려운 난관이 가로놓여도 인민대중의 사상과 행동하면 일마흔 수놓고 나갈수 있다고 하시었습니다.』

이 땅의 누구나가 심장으로

절감하듯이 위대한 장군님의 행운은 인민에 대한 열화같은 사랑으로 수놓아진 차애로운 어버이의 황령이었다.

그 무었을 하나 보시여도 일 몸을 먼저 생각하고 인민을 위해 적은 힘이나마 바쳐가고 있는 일군들을 보시면 그리고 대전에 하시며 코나큰 일 몸을 안겨 주신 위대한 장군님이시였다.

평양과 밀리 멀어져 있는 어느 한 수산물가공기지에 도 가슴뜨거운 이 야기가 새겨져 있다.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은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였다.

『위대한 장군님의 마음속에는 언제 어디서나 사랑하는 조국과 인민이 소통하는 차라리고 있었습니다.』

별반 바람이 기승을 부리던 주제 100(2011)년 12월 어느 날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사업소를 찾으셨다.

일군들과 다정히 인사를 나누신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수산물 가공장을 들여보았다.

이어 가공장으로 들어서신

일군의 안내를 받았으며 우리가 제일 먼저 찾은 곳은 연혁소개실이었다.

여기에서 일군은 주제 47(1958)년 4월의 뜨거운 추억으로 우리를 이끌었다.

그때 강선로 통제금은 시편을 막아며 천리마를 탄 기세로 내달려 선제압연의 자동화공사를 자체의 힘으로 끌고 내었다. 그에 대한 보고를 받으신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통제금이 미련한 또 하나의 상조물을 보시기 위하여 강선땅을 찾으셨다.

우리 수령님의 기쁨은 참으로 한창 없으셨다.

용을 쓰며 돌아가는 세 강소의 승강을 아름다워하는 조국의 전진가로 들으시며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통제금이 미련한 또 하나의 상조물을 보시기 위하여 강선땅을 찾으셨다.

생산도 하늘하늘하지만 그보다도 로동자들의 생활조건보장을 두고 깊이 마음쓰신 우리 수령님이시였다. 그이께서는

로동자들의 주택 문제로부터 시작하여 남새와 간강, 푸른기, 너너히 꽁꽁해 주는 문제는 물론 그들의 건강 문제에 이르기까지 사라길이 헤아려주시였다. 어버이수령님께서 평양-남포 사이를 더니는 떠내선을 무어 대 통증에 끼워고 강선에 유보도를 건설하여 제강소 주변을 더 아름답게 꾸몄다.

사랑의 조치를 위해 주식 때 허용되는 쇠불보다 더 뜨거운

작정이 놀라웠다.

그날 알연직장에서 선제 압연기를 보아주신 어버이수령님께서는 선제암연 기를 만드는 것은 어렵고 힘든 일이지만 우리의 로동자, 기술자들이 자체로 설계하고 대형주강물을 생산하여 짧은 기간에 훌륭히 만들었다고 하시며 강선의 통제금을 높이 평가해 주시었다.

자기들이 해놓은 코지 않은 일이 어버이수령님에 그처럼 기쁨이 절줄 일군들과 로동자들은 미처 알수 없었다.

우리로 통제금이 자체의 힘으로 배놓은 일이라면 비록 코지 않아도 소중히 여기시고 높이 일러주신 우리 수령님,

하기에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강선로 통제금이 이룩한 성과를 다른 나라에서 인정해 주시고 그 말에서 우리는 아름다운 강선의 노을에 대하여 생각하게 되었다.

후날 어버이수령님을 모시고 강선로 통제금을 살피신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전기로마다 거세하게 흘러나오는 물은 쇠불을 보시며 참으로 물수불과 장폐하

다고, 이것은 로동당시대의 대제기기를 친환경 수송이 가능한 하나의 서사시적화 죽이 되고 담담히 하시였다.

불수불 정해한 물은 쇠불, 하나의 서사시적화,

우리 장군님께서 한편의 시를 읊으시면서 하신 김경길은 그 말씀에서 우리는 아름다운 강선의 노을에 대하여 생각하게 되었다.

우리는 초고전적 기를 더 넓혀온

어버이수령님의 진실과 뜻에 따라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군속공업의 주체화를 위하여 물을 더 넓힐 것을

도모하였고,

원미제강기업소에서 철강제련을

제작하는 것은 어렵고 힘든 일이다.

온 강선땅이 절세위인들의 발자취가 깊은 하나의 기대한 대천박물관이라는 생각으로

걱정을 금할수 없었다.

이를 할수 없는 강회에 젖어 있는

로 결음을 옮기시였다.

그곳에는 딸기와 도루묵이,

네구살, 대 철조개살을 비롯한

여러 가지 가공제품들이 진시되었던 것이다.

사업소의 일군으로부터 가공제품에 대한 이야기를 들으신

제작소에서 그만하면 많이

잡았다고 정가에 주시고 그 말에

사업소의 차례인 다음에

2월에 수많은 수산물가공물을

생산하여 청양시민들에게 보내

주며 한탄는데 대하여 달콤을 먹

고 하시였다.

여기에서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수놓은 통합지침실에

들어섰다가 흐뭇한

얼굴로 놀라운 물건을 발견해

나오신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수산물가공장을 배경으로 놀라운

듯이 놀라운 물건을 발견해

나오신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수놓은 통합지침실에

들어섰다가 흐뭇한

얼굴로 놀라운 물건을 발견해

나오신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수놓은 통합지침실에

들어섰다가 흐뭇한

얼굴로 놀라운 물건을 발견해

나오신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수놓은 통합지침실에

들어섰다가 흐뭇한

얼굴로 놀라운 물건을 발견해

나오신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수놓은 통합지침실에

들어섰다가 흐뭇한

얼굴로 놀라운 물건을 발견해

나오신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수놓은 통합지침실에

들어섰다가 흐뭇한

얼굴로 놀라운 물건을 발견해

나오신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수놓은 통합지침실에

들어섰다가 흐뭇한

얼굴로 놀라운 물건을 발견해

나오신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수놓은 통합지침실에

들어섰다가 흐뭇한

얼굴로 놀라운 물건을 발견해

나오신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수놓은 통합지침실에

들어섰다가 흐뭇한

얼굴로 놀라운 물건을 발견해

나오신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수놓은 통합지침실에

들어섰다가 흐뭇한

얼굴로 놀라운 물건을 발견해

나오신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수놓은 통합지침실에

들어섰다가 흐뭇한

얼굴로 놀라운 물건을 발견해

나오신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수놓은 통합지침실에

들어섰다가 흐뭇한

얼굴로 놀라운 물건을 발견해

나오신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수놓은 통합지침실에

들어섰다가 흐뭇한

얼굴로 놀라운 물건을 발견해

나오신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수놓은 통합지침실에

들어섰다가 흐뭇한

얼굴로 놀라운 물건을 발견해

나오신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수놓은 통합지침실에

들어섰다가 흐뭇한

얼굴로 놀라운 물건을 발견해

나오신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수놓은 통합지침실에

들어섰다가 흐뭇한

얼굴로 놀라운 물건을 발견해

나오신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수놓은 통합지침실에

들어섰다가 흐뭇한

얼굴로 놀라운 물건을 발견해

나오신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수놓은 통합지침실에

들어섰다가 흐뭇한

얼굴로 놀라운 물건을 발견해

나오신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수놓은 통합지침실에

들어섰다가 흐뭇한

얼굴로 놀라운 물건을 발견해

나오신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지극한 사랑과 멀사복무의 정신을 안고

위대한 명도자
길정일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치료사업에 진실로 봉화
마음을 다 바쳐 헌신분부하는
의료일군이라야 우리 당의 참
된 보건전사, 인민조선의 진
짜기며 의료일군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우리 당의 보건정책을 높이
발휘하고 침입성종합대학 평양의
해당학원 의료일군들이 환자
치료사업에 자신들의 지혜와 열
정을 다 바쳐가고 있다.

최신의 학파기술을 적극 받아들여

보건실원에서 최신의 학파
기술을 적극 받아들이고 의
료일군들의 침상설기능력을 높
이기 위한 사업을 어려가지 형
식과 방식으로 근거있게 진행해
나갔다.

경비법에 내시경을 적용한 뇌
하수체종양수술방법을 더욱 발
전시키기 위한 파학연구활동을
힘들어 빌려 뛰상설원에서 푸렷
한 성과를 이룩하였다. 또한 저
침습적 주간관찰증수술을 우
리식으로 더욱 발전시켜 절개
면적을 적게 하면서도 수술후
회복기를 단축하고 어려가지
함께 중증의 발생률을 줄일수
있게 하였다.

홍석판원장을 비롯한 병원의
책임일군들이 주간관찰체계를
비롯하여 치료침습주간관찰을
통하여 약물소비량을 횡
면 줄일수 있게 하였다.

인민의 생명건강을 지켜온 높
고 귀한 부름 심

엄마친 우리는 순환기내과의
의료일군들을 만나는 과정에 만
족되면서 보건진사들이 지난 지
극한 성과와 고장난 청진체계를
더 친밀하게 향기로운 활동을
벌여왔다.

우리와 만난 파의 한 일군은
화해에 들어서면서도 친절히
실을 새로 꾸리고 2대의 종합
감시설비를 설치하는 등 치료조
직과 환경을 개선하여 환자치료
사업에서 많은 성과를 거두고 있
다고 하면서 이런 이야기를 들
려주었다.

평양구역 평원1동에서 사는
한정숙녀성이는 파의 일원으로
날마다 환자를 살펴낼수 있다
는 담보는 없다. 하지만 우리 의료
일군들은 당시 보건진사에게 인
민에 대한 열사복무정신으로 실
상을 물어볼 때 기적이 있어 일
날 것이다. . . .

당시 평원1동에서는 환자들을
제대로 치료하기 위한 방침을
제정하여 이를 기반으로
수술을 성과적으로 진행하였다.

이들은 우리 나라에서 처음으
로 지난 시기 단기병으로 되어
있었고 기술적 난도가 매우 높은
수술을 마주한 의료일군

학대학병원 의료일군들

은 책임감과 영예를 얻고 첨단
의 최종증환자를 위한 긴장한
성과를 이룩하였다.

뿐만 아니라 청단의 학파기
술을 적극 개발도입하는 과정을
통하여 우리의 원료를 가지고
체주후방고장술과 같이 어려운
수술에서 나서는 학파기술적문

제들을 자체로 원만히 해결해
나갔다.

우리의 의학기술과 과학연구사업
을 강화하여 재능있는 의학자
들을 더 많이 육성하며 나라의
의학기술을 빠르게 발전시킬
데 대한 위대한 장군님의 현지
교시를 높이 받들고 이곳의 의료
일군들은 더욱 열심히 성과에 자만
하지 않고 더 높은 침판목표를
향하여 계속 힘차게 나아가고
있다.

당당히 의사 문성우, 담당간호원
리수정등부들은 최근에 뛰어난
성과를 인정받았으며 그들의
업적을 널리 알리고 의식을 회복할
것 같았다.

드디어 성과가 명랑이 되어서
인간 문모를 두둔하는 치료전투
에 헌정숙녀성이 3일만에 거리
로 의료일군들이 있어 병원문을
나서는 사람마다 인간의 생명을
제일 귀중히 여기는 사회주의보
건제도에 대한 고마움으로 눈굽
을 치는 것 같았다.

의식을 회복한 환자의 눈가에
비끼는 낯모를 얼굴을, 눈에 소
생하였다고 기뻐하며 눈물을 머
금고 비비는 의료일군들의 정
운 눈에서 한정숙녀성은 하나님의
화목한 대가정을 이루고
서로 끊고 이끌며 사는 우리 사
회의 창모습을 다시금 볼 수 있
었다.

환자는 의식을 회복한 후에도
온정으로 환자를 살피면서
온정으로 환자를 살피면서
온정으로 환자를 살피면서

온정으로 환자를 살피면서
온정으로 환자를 살피면서
온정으로 환자를 살피면서

온정으로 환자를 살피면서
온정으로 환자를 살피면서
온정으로 환자를 살피면서

온정으로 환자를 살피면서
온정으로 환자를 살피면서
온정으로 환자를 살피면서

온정으로 환자를 살피면서
온정으로 환자를 살피면서
온정으로 환자를 살피면서

온정으로 환자를 살피면서
온정으로 환자를 살피면서
온정으로 환자를 살피면서

온정으로 환자를 살피면서
온정으로 환자를 살피면서
온정으로 환자를 살피면서

온정으로 환자를 살피면서
온정으로 환자를 살피면서
온정으로 환자를 살피면서

온정으로 환자를 살피면서
온정으로 환자를 살피면서
온정으로 환자를 살피면서

온정으로 환자를 살피면서
온정으로 환자를 살피면서
온정으로 환자를 살피면서

온정으로 환자를 살피면서
온정으로 환자를 살피면서
온정으로 환자를 살피면서

온정으로 환자를 살피면서
온정으로 환자를 살피면서
온정으로 환자를 살피면서

온정으로 환자를 살피면서
온정으로 환자를 살피면서
온정으로 환자를 살피면서

온정으로 환자를 살피면서
온정으로 환자를 살피면서
온정으로 환자를 살피면서

온정으로 환자를 살피면서
온정으로 환자를 살피면서
온정으로 환자를 살피면서

온정으로 환자를 살피면서
온정으로 환자를 살피면서
온정으로 환자를 살피면서

온정으로 환자를 살피면서
온정으로 환자를 살피면서
온정으로 환자를 살피면서

온정으로 환자를 살피면서
온정으로 환자를 살피면서
온정으로 환자를 살피면서

온정으로 환자를 살피면서
온정으로 환자를 살피면서
온정으로 환자를 살피면서

온정으로 환자를 살피면서
온정으로 환자를 살피면서
온정으로 환자를 살피면서

온정으로 환자를 살피면서
온정으로 환자를 살피면서
온정으로 환자를 살피면서

온정으로 환자를 살피면서
온정으로 환자를 살피면서
온정으로 환자를 살피면서

온정으로 환자를 살피면서
온정으로 환자를 살피면서
온정으로 환자를 살피면서

온정으로 환자를 살피면서
온정으로 환자를 살피면서
온정으로 환자를 살피면서

온정으로 환자를 살피면서
온정으로 환자를 살피면서
온정으로 환자를 살피면서

온정으로 환자를 살피면서
온정으로 환자를 살피면서
온정으로 환자를 살피면서

온정으로 환자를 살피면서
온정으로 환자를 살피면서
온정으로 환자를 살피면서

온정으로 환자를 살피면서
온정으로 환자를 살피면서
온정으로 환자를 살피면서

온정으로 환자를 살피면서
온정으로 환자를 살피면서
온정으로 환자를 살피면서

온정으로 환자를 살피면서
온정으로 환자를 살피면서
온정으로 환자를 살피면서

온정으로 환자를 살피면서
온정으로 환자를 살피면서
온정으로 환자를 살피면서

온정으로 환자를 살피면서
온정으로 환자를 살피면서
온정으로 환자를 살피면서

온정으로 환자를 살피면서
온정으로 환자를 살피면서
온정으로 환자를 살피면서

온정으로 환자를 살피면서
온정으로 환자를 살피면서
온정으로 환자를 살피면서

온정으로 환자를 살피면서
온정으로 환자를 살피면서
온정으로 환자를 살피면서

온정으로 환자를 살피면서
온정으로 환자를 살피면서
온정으로 환자를 살피면서

온정으로 환자를 살피면서
온정으로 환자를 살피면서
온정으로 환자를 살피면서

온정으로 환자를 살피면서
온정으로 환자를 살피면서
온정으로 환자를 살피면서

온정으로 환자를 살피면서
온정으로 환자를 살피면서
온정으로 환자를 살피면서

온정으로 환자를 살피면서
온정으로 환자를 살피면서
온정으로 환자를 살피면서

온정으로 환자를 살피면서
온정으로 환자를 살피면서
온정으로 환자를 살피면서

온정으로 환자를 살피면서
온정으로 환자를 살피면서
온정으로 환자를 살피면서

온정으로 환자를 살피면서
온정으로 환자를 살피면서
온정으로 환자를 살피면서

온정으로 환자를 살피면서
온정으로 환자를 살피면서
온정으로 환자를 살피면서

온정으로 환자를 살피면서
온정으로 환자를 살피면서
온정으로 환자를 살피면서

온정으로 환자를 살피면서
온정으로 환자를 살피면서
온정으로 환자를 살피면서

온정으로 환자를 살피면서
온정으로 환자를 살피면서
온정으로 환자를 살피면서

온정으로 환자를 살피면서
온정으로 환자를 살피면서
온정으로 환자를 살피면서

온정으로 환자를 살피면서
온정으로 환자를 살피면서
온정으로 환자를 살피면서

온정으로 환자를 살피면서
온정으로 환자를 살피면서
온정으로 환자를 살피면서

온정으로 환자를 살피면서
온정으로 환자를 살피면서
온정으로 환자를 살피면서

온정으로 환자를 살피면서
온정으로 환자를 살피면서
온정으로 환자를 살피면서

온정으로 환자를 살피면서
온정으로 환자를 살피면서
온정으로 환자를 살피면서

온정으로 환자를 살피면서
온정으로 환자를 살피면서
온정으로 환자를 살피면서

온정으로 환자를 살피면서
온정으로 환자를 살피면서
온정으로 환자를 살피면서

온정으로 환자를 살피면서
온정으로 환자를 살피면서
온정으로 환자를 살피면서

온정으로 환자를 살피면서
온정으로 환자를 살피면서
온정으로 환자를 살피면서

온정으로 환자를 살피면서
온정으로 환자를 살피면서
온정으로 환자를 살피면서

온정으로 환자를 살피면서
온정으로 환자를 살피면서
온정으로 환자를 살피면서

온정으로 환자를 살피면서
온정으로 환자를 살피면서
온정으로 환자를 살피면서

온정으로 환자를 살피면서
온정으로 환자를 살피면서
온정으로 환자를 살피면서

온정으로 환자를 살피면서
온정으로 환자를 살피면서
온정으로 환자를 살피면서

온정으로 환자를 살피면서
온정으로 환자를 살피면서
온정으로 환자를 살피면서

온정으로 환자를 살피면서
온정으로 환자를 살피면서
온정으로 환자를 살피면서

온정으로 환자를 살피면서
온정으로 환자를 살피면서
온정으로 환자를 살피면서

온정으로 환자를 살피면서
온정으로 환자를 살피면서
온정으로 환자를 살피면서

온정으로 환자를 살피면서
온정으로 환자를 살피면서
온정으로 환자를 살피면서

온정으로 환자를 살피면서
온정으로 환자를 살피면서
온정으로 환자를 살피면서

온정으로 환자를 살피면서
온정으로 환자를 살피면서
온정으로 환자를 살피면서

온정으로 환자를 살피면서
온정으로 환자를 살피면서
온정으로 환자를 살피면서

온정으로 환자를 살피면서
온정으로 환자를 살피면서
온정으로 환자를 살피면서

온정으로 환자를 살피면서
온정으로 환자를 살피면서
온정으로 환자를 살피면서

온정으로 환자를 살피면서
온정으로 환자를 살피면서
온정으로 환자를 살피면서

온정으로 환자를 살피면서
온정으로 환자를 살피면서
온정으로 환자를 살피면서

온정으로 환자를 살피면서
온정으로 환자를 살피면서
온정으로 환자를 살피면서

온정으로 환자를 살피면서
온정으로 환자를 살피면서
온정으로 환자를 살피면서

온정으로 환자를 살피면서
온정으로 환자를 살피면서
온정으로 환자를 살피면서

온정으로 환자를 살피면서
온정으로 환자를 살피면서
온정으로 환자를 살피면서

온정으로 환자를 살피면서
온정으로 환자를 살피면서
온정으로 환자를 살피면서

온정으로 환자를 살피면서
온정으로 환자를 살피면서
온정으로 환자를 살피면서

온정으로 환자를 살피면서
온정으로 환자를 살피면서
온정으로 환자를 살피면서

온정으로 환자를 살피면서
온정으로 환자를 살피면서
온정으로 환자를 살피면서

온정으로 환자를 살피면서
온정으로 환자를 살피면서
온정으로 환자를 살피면서

온정으로 환자를 살피면서
온정으로 환자를 살피면서
온정으로 환자를 살피면서

사회주의는 인류 공동의 리상이다

자본주의에 앞날이 없다는것이 날이 갈 원만히 실현되게 된다.

여러해전에 미국에서 발생한 금융위기가 세계를 휩쓸고 자본주의 나라들에서 반복되면서 자본주의의 문제들이 떨어지면서 자본주의의 한계들이 널리 드러났다. 그것은 자본주의의 물질적으로 되고 있는 시장경제원리,《세계화》,《복지사회》론이 모두 한계에 도달하였기 때문에 자본주의의 나머지를 끊고 있는 심각한 정치경제적 위기를 절대로 극복할 수 없다는 것이다.

미국에서도 철 사회제도에 반항하는 분위기가 조성되고 있다. 미국의 한 언론은 보도한 바에 의하면 2015년 한 해 동안 미국에서 가장 많이 찾고 단어가 바로 사회주의이다.

현실은 자본주의로의 인류의 피상을 실현할 수 없다는 것을 실증해 주고 있다.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은同志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해 주셨다.

『사회주의는 인류 공동의 리상이며 인민들이 사회주의에로 나아가는 것은 역사발전의 법칙입니다.』

인민들은 창구한 기간 치유와 암바, 치매와 예속이 없고 모두가 다같이 평등하게 잘사는 자본주의 신 사회를 갈망하여 왔다. 인류의 이러한 리상을 풀파워 주는 것과 바로 사회주의이고 그것을 찾았는 것이 자본주의이다.

사회주의는 모든 사람들에게 진정한 자유와 평등을 보장해 준다. 철주주의에 기초한 사회주의에서는 사람들은 생활과 노동을 같이 하면서 세계와 자기 운명의 주인으로 사는 것을 최고의 리상으로 여기고 있다. 때문에 동지적사랑과 호상협조가 사회생활의 기초로 생활방식으로 되어 평등이

개인주의에 기초하고 있고 적대적인 계급으로 갈라져 있는 자본주의 사회에서는 완전한 평등이 보장될 수 없다. 수단과 방법을 통하여 개인의 리익을 올리고 실현하는 것이 최고의 목적으로 되고 기때문에 갈등과 혼란을 초래하게 된다.

자본주의를 도입한 결과는 바로 이렇다. 사회주의의 원칙은 인민대중의 자주적 요구와 피상을 실현하기 위한 정당한 위업이며 인류가 사회주의에로 나아가는 것은 그 누구도 고려할 수 없는 역사의 법칙이다.

지난 세기 초반에 처음으로 개척되고 승리적으로 전진하여온 사회주의는 수천년 동안 지속되어온 낡은 사회를 청산하고 인민대중을 국가와 사회의 주인, 자기 주권으로 대체시킬 것을 강화하고자 했다. 이것은 사회주의의 원칙으로 전진하는 것이며 창조적인 새 생활을 마련해 주었다.

자본주의의 사회에서는 몇몇년이 걸려도 도달할 수 없는 경제적, 과학기술적 진보를 이룩하고 앞으로 보다 빠른 속도로 발전할 수 있는 튼튼한 토대를 마련하여놓았다.

이것은 사회주의의 비밀이었다.

모습에 현혹되어 자본주의 정체방식과 시장경제를 도입하였다. 다양한 제도를 실시하고

국가적, 전인민적 소유와 협동식 소유를 혼용하여 사적소유로 전환시켰다. 그들은 이러한 것들이 생산력을 발전시키기 편이

며 그렇게 되면 물질적 부가 늘어나 나아가야 한다는 확장을 하고자 했던 것이다.

인류의 리상을 실현할 수 있는 길은 사회주의밖에 없다. 이미 지난 세기 경제적 부흥을 이루어보겠다고 자본주의의 틀에 대한 확장을 한다. 일정한 수준에서 생활하는 사람들도 언제 민족의 나락에 굽어鞠어여기지 불과 한지도 마음을 놓지 못하고 사는

인류가 자본주의의 사회이다.

인류의 리상을 실현할 수 있는 길은 사회주의밖에 없다. 이미 지난 세기 경제적 부흥을 이루어보겠다고 자본주의의 틀에 대한 확장을 한다. 일정한 수준에서 생활하는 사람들도 언제 민족의 나락에 굽어鞠어여기지 불과 한지도 마음을 놓지 못하고 사는

인류가 자본주의의 사회이다.

인류의 리상을 실현할 수 있는 길은 사회주의밖에 없다. 이미 지난 세기 경제적 부흥을 이루어보겠다고 자본주의의 틀에 대한 확장을 한다. 일정한 수준에서 생활하는 사람들도 언제 민족의 나락에 굽어鞠어여기지 불과 한지도 마음을 놓지 못하고 사는

인류가 자본주의의 사회이다.

인류의 리상을 실현할 수 있는 길은 사회주의밖에 없다. 이미 지난 세기 경제적 부흥을 이루어보겠다고 자본주의의 틀에 대한 확장을 한다. 일정한 수준에서 생활하는 사람들도 언제 민족의 나락에 굽어鞠어여기지 불과 한지도 마음을 놓지 못하고 사는

인류가 자본주의의 사회이다.

인류의 리상을 실현할 수 있는 길은 사회주의밖에 없다. 이미 지난 세기 경제적 부흥을 이루어보겠다고 자본주의의 틀에 대한 확장을 한다. 일정한 수준에서 생활하는 사람들도 언제 민족의 나락에 굽어鞠어여기지 불과 한지도 마음을 놓지 못하고 사는

인류가 자본주의의 사회이다.

인류의 리상을 실현할 수 있는 길은 사회주의밖에 없다. 이미 지난 세기 경제적 부흥을 이루어보겠다고 자본주의의 틀에 대한 확장을 한다. 일정한 수준에서 생활하는 사람들도 언제 민족의 나락에 굽어鞠어여기지 불과 한지도 마음을 놓지 못하고 사는

인류가 자본주의의 사회이다.

인류의 리상을 실현할 수 있는 길은 사회주의밖에 없다. 이미 지난 세기 경제적 부흥을 이루어보겠다고 자본주의의 틀에 대한 확장을 한다. 일정한 수준에서 생활하는 사람들도 언제 민족의 나락에 굽어鞠어여기지 불과 한지도 마음을 놓지 못하고 사는

인류가 자본주의의 사회이다.

인류의 리상을 실현할 수 있는 길은 사회주의밖에 없다. 이미 지난 세기 경제적 부흥을 이루어보겠다고 자본주의의 틀에 대한 확장을 한다. 일정한 수준에서 생활하는 사람들도 언제 민족의 나락에 굽어鞠어여기지 불과 한지도 마음을 놓지 못하고 사는

인류가 자본주의의 사회이다.

인류의 리상을 실현할 수 있는 길은 사회주의밖에 없다. 이미 지난 세기 경제적 부흥을 이루어보겠다고 자본주의의 틀에 대한 확장을 한다. 일정한 수준에서 생활하는 사람들도 언제 민족의 나락에 굽어鞠어여기지 불과 한지도 마음을 놓지 못하고 사는

인류가 자본주의의 사회이다.

인류의 리상을 실현할 수 있는 길은 사회주의밖에 없다. 이미 지난 세기 경제적 부흥을 이루어보겠다고 자본주의의 틀에 대한 확장을 한다. 일정한 수준에서 생활하는 사람들도 언제 민족의 나락에 굽어鞠어여기지 불과 한지도 마음을 놓지 못하고 사는

인류가 자본주의의 사회이다.

인류의 리상을 실현할 수 있는 길은 사회주의밖에 없다. 이미 지난 세기 경제적 부흥을 이루어보겠다고 자본주의의 틀에 대한 확장을 한다. 일정한 수준에서 생활하는 사람들도 언제 민족의 나락에 굽어鞠어여기지 불과 한지도 마음을 놓지 못하고 사는

인류가 자본주의의 사회이다.

인류의 리상을 실현할 수 있는 길은 사회주의밖에 없다. 이미 지난 세기 경제적 부흥을 이루어보겠다고 자본주의의 틀에 대한 확장을 한다. 일정한 수준에서 생활하는 사람들도 언제 민족의 나락에 굽어鞠어여기지 불과 한지도 마음을 놓지 못하고 사는

인류가 자본주의의 사회이다.

인류의 리상을 실현할 수 있는 길은 사회주의밖에 없다. 이미 지난 세기 경제적 부흥을 이루어보겠다고 자본주의의 틀에 대한 확장을 한다. 일정한 수준에서 생활하는 사람들도 언제 민족의 나락에 굽어鞠어여기지 불과 한지도 마음을 놓지 못하고 사는

인류가 자본주의의 사회이다.

인류의 리상을 실현할 수 있는 길은 사회주의밖에 없다. 이미 지난 세기 경제적 부흥을 이루어보겠다고 자본주의의 틀에 대한 확장을 한다. 일정한 수준에서 생활하는 사람들도 언제 민족의 나락에 굽어鞠어여기지 불과 한지도 마음을 놓지 못하고 사는

인류가 자본주의의 사회이다.

인류의 리상을 실현할 수 있는 길은 사회주의밖에 없다. 이미 지난 세기 경제적 부흥을 이루어보겠다고 자본주의의 틀에 대한 확장을 한다. 일정한 수준에서 생활하는 사람들도 언제 민족의 나락에 굽어鞠어여기지 불과 한지도 마음을 놓지 못하고 사는

인류가 자본주의의 사회이다.

인류의 리상을 실현할 수 있는 길은 사회주의밖에 없다. 이미 지난 세기 경제적 부흥을 이루어보겠다고 자본주의의 틀에 대한 확장을 한다. 일정한 수준에서 생활하는 사람들도 언제 민족의 나락에 굽어鞠어여기지 불과 한지도 마음을 놓지 못하고 사는

인류가 자본주의의 사회이다.

인류의 리상을 실현할 수 있는 길은 사회주의밖에 없다. 이미 지난 세기 경제적 부흥을 이루어보겠다고 자본주의의 틀에 대한 확장을 한다. 일정한 수준에서 생활하는 사람들도 언제 민족의 나락에 굽어鞠어여기지 불과 한지도 마음을 놓지 못하고 사는

인류가 자본주의의 사회이다.

인류의 리상을 실현할 수 있는 길은 사회주의밖에 없다. 이미 지난 세기 경제적 부흥을 이루어보겠다고 자본주의의 틀에 대한 확장을 한다. 일정한 수준에서 생활하는 사람들도 언제 민족의 나락에 굽어鞠어여기지 불과 한지도 마음을 놓지 못하고 사는

인류가 자본주의의 사회이다.

인류의 리상을 실현할 수 있는 길은 사회주의밖에 없다. 이미 지난 세기 경제적 부흥을 이루어보겠다고 자본주의의 틀에 대한 확장을 한다. 일정한 수준에서 생활하는 사람들도 언제 민족의 나락에 굽어鞠어여기지 불과 한지도 마음을 놓지 못하고 사는

인류가 자본주의의 사회이다.

인류의 리상을 실현할 수 있는 길은 사회주의밖에 없다. 이미 지난 세기 경제적 부흥을 이루어보겠다고 자본주의의 틀에 대한 확장을 한다. 일정한 수준에서 생활하는 사람들도 언제 민족의 나락에 굽어鞠어여기지 불과 한지도 마음을 놓지 못하고 사는

인류가 자본주의의 사회이다.

인류의 리상을 실현할 수 있는 길은 사회주의밖에 없다. 이미 지난 세기 경제적 부흥을 이루어보겠다고 자본주의의 틀에 대한 확장을 한다. 일정한 수준에서 생활하는 사람들도 언제 민족의 나락에 굽어鞠어여기지 불과 한지도 마음을 놓지 못하고 사는

인류가 자본주의의 사회이다.

인류의 리상을 실현할 수 있는 길은 사회주의밖에 없다. 이미 지난 세기 경제적 부흥을 이루어보겠다고 자본주의의 틀에 대한 확장을 한다. 일정한 수준에서 생활하는 사람들도 언제 민족의 나락에 굽어鞠어여기지 불과 한지도 마음을 놓지 못하고 사는

인류가 자본주의의 사회이다.

인류의 리상을 실현할 수 있는 길은 사회주의밖에 없다. 이미 지난 세기 경제적 부흥을 이루어보겠다고 자본주의의 틀에 대한 확장을 한다. 일정한 수준에서 생활하는 사람들도 언제 민족의 나락에 굽어鞠어여기지 불과 한지도 마음을 놓지 못하고 사는

인류가 자본주의의 사회이다.

인류의 리상을 실현할 수 있는 길은 사회주의밖에 없다. 이미 지난 세기 경제적 부흥을 이루어보겠다고 자본주의의 틀에 대한 확장을 한다. 일정한 수준에서 생활하는 사람들도 언제 민족의 나락에 굽어鞠어여기지 불과 한지도 마음을 놓지 못하고 사는

인류가 자본주의의 사회이다.

인류의 리상을 실현할 수 있는 길은 사회주의밖에 없다. 이미 지난 세기 경제적 부흥을 이루어보겠다고 자본주의의 틀에 대한 확장을 한다. 일정한 수준에서 생활하는 사람들도 언제 민족의 나락에 굽어鞠어여기지 불과 한지도 마음을 놓지 못하고 사는

인류가 자본주의의 사회이다.

인류의 리상을 실현할 수 있는 길은 사회주의밖에 없다. 이미 지난 세기 경제적 부흥을 이루어보겠다고 자본주의의 틀에 대한 확장을 한다. 일정한 수준에서 생활하는 사람들도 언제 민족의 나락에 굽어鞠어여기지 불과 한지도 마음을 놓지 못하고 사는

인류가 자본주의의 사회이다.

인류의 리상을 실현할 수 있는 길은 사회주의밖에 없다. 이미 지난 세기 경제적 부흥을 이루어보겠다고 자본주의의 틀에 대한 확장을 한다. 일정한 수준에서 생활하는 사람들도 언제 민족의 나락에 굽어鞠어여기지 불과 한지도 마음을 놓지 못하고 사는

인류가 자본주의의 사회이다.

인류의 리상을 실현할 수 있는 길은 사회주의밖에 없다. 이미 지난 세기 경제적 부흥을 이루어보겠다고 자본주의의 틀에 대한 확장을 한다. 일정한 수준에서 생활하는 사람들도 언제 민족의 나락에 굽어鞠어여기지 불과 한지도 마음을 놓지 못하고 사는

인류가 자본주의의 사회이다.

인류의 리상을 실현할 수 있는 길은 사회주의밖에 없다. 이미 지난 세기 경제적 부흥을 이루어보겠다고 자본주의의 틀에 대한 확장을 한다. 일정한 수준에서 생활하는 사람들도 언제 민족의 나락에 굽어鞠어여기지 불과 한지도 마음을 놓지 못하고 사는

인류가 자본주의의 사회이다.

인류의 리상을 실현할 수 있는 길은 사회주의밖에 없다. 이미 지난 세기 경제적 부흥을 이루어보겠다고 자본주의의 틀에 대한 확장을 한다. 일정한 수준에서 생활하는 사람들도 언제 민족의 나락에 굽어鞠어여기지 불과 한지도 마음을 놓지 못하고 사는

인류가 자본주의의 사회이다.

인류의 리상을 실현할 수 있는 길은 사회주의밖에 없다. 이미 지난 세기 경제적 부흥을 이루어보겠다고 자본주의의 틀에 대한 확장을 한다. 일정한 수준에서 생활하는 사람들도 언제 민족의 나락에 굽어鞠어여기지 불과 한지도 마음을 놓지 못하고 사는

인류가 자본주의의 사회이다.

인류의 리상을 실현할 수 있는 길은 사회주의밖에 없다. 이미 지난 세기 경제적 부흥을 이루어보겠다고 자본주의의 틀에 대한 확장을 한다. 일정한 수준에서 생활하는 사람들도 언제 민족의 나락에 굽어鞠어여기지 불과 한지도 마음을 놓지 못하고 사는

인류가 자본주의의 사회이다.

인류의 리상을 실현할 수 있는 길은 사회주의밖에 없다. 이미 지난 세기 경제적 부흥을 이루어보겠다고 자본주의의 틀에 대한 확장을 한다. 일정한 수준에서 생활하는 사람들도 언제 민족의 나락에 굽어鞠어여기지 불과 한지도 마음을 놓지 못하고 사는

인류가 자본주의의 사회이다.

인류의 리상을 실현할 수 있는 길은 사회주의밖에 없다. 이미 지난 세기 경제적 부흥을 이루어보겠다고 자본주의의 틀에 대한 확장을 한다. 일정한 수준에서 생활하는 사람들도 언제 민족의 나락에 굽어鞠어여기지 불과 한지도 마음을 놓지 못하고 사는

인류가 자본주의의 사회이다.

인류의 리상을 실현할 수 있는 길은 사회주의밖에 없다. 이미 지난 세기 경제적 부흥을 이루어보겠다고 자본주의의 틀에 대한 확장을 한다. 일정한 수준에서 생활하는 사람들도 언제 민족의 나락에 굽어鞠어여기지 불과 한지도 마음을 놓지 못하고 사는

인류가 자본주의의 사회이다.

인류의 리상을 실현할 수 있는 길은 사회주의밖에 없다. 이미 지난 세기 경제적 부흥을 이루어보겠다고 자본주의의 틀에 대한 확장을 한다. 일정한 수준에서 생활하는 사람들도 언제 민족의 나락에 굽어鞠어여기지 불과 한지도 마음을 놓지 못하고 사는

인류가 자본주의의 사회이다.

인류의 리상을 실현할 수 있는 길은 사회주의밖에 없다. 이미 지난 세기 경제적 부흥을 이루어보겠다고 자본주의의 틀에 대한 확장을 한다. 일정한 수준에서 생활하는 사람들도 언제 민족의 나락에 굽어鞠어여기지 불과 한지도 마음을 놓지 못하고 사는

인류가 자본주의의 사회이다.

인류의 리상을 실현할 수 있는 길은 사회주의밖에 없다. 이미 지난 세기 경제적 부흥을 이루어보겠다고 자본주의의 틀에 대한 확장을 한다. 일정한 수준에서 생활하는 사람들도 언제 민족의 나락에 굽어鞠어여기지 불과 한지도 마음을 놓지 못하고 사는

인류가 자본주의